

서울대, 제3의 동물 복제실험 성과

김우식 부총리, 개·늑대 아닌 다른 동물 ... 빠른 속도로 위기 극복

서울대 수의대가 개와 늑대가 아닌 제3의 동물에 대한 복제실험을 진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1월22일 서울대 수의대 산과(産科) 실험실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학교 측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다른 동물들도 여럿 있었으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연구결과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수의대가 보이고 있는 뛰어나고 독창적인 연구성과는 우리나라 과학계가 세계적으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의대는 재작년에 겪었던 아픔(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학기술부는 수의대 이병천 교수팀의 동물복제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수의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황우석 전 교수 사태로 공사가 중단된 수의대 의생명공학연구동 지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허락된 여건에서 서울대 측과 협의할 생각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수의대 방문에 앞서 이장무 총장과 환담을 나눈 김우식 부총리 일행은 수의대 생명공학연구실과 산과 실험실 등을 둘러본 뒤 수의대 연구원들과 오찬을 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2>